

두 개의 문: ‘한국말과 한글’로  
살펴 보는 ‘한국’이라는 관점

Two Doors: A View of Korea  
Looking through Spoken  
and Written Language

### 한국디자인사학회의 관점

역사는 단순히 과거 사실이 아닙니다. 우표 수집을 역사라 말하지 않듯이, 과거의 물건이나 사실을 수집해 나열한 것을 역사라 말하긴 어렵습니다. 과거 사실의 수집과 나열이 역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역사가의 해석이 더해져야 합니다. 마치 자연현상에 과학자의 해석이 더해지듯이요.

역사에는 '역사가의 관점'과 그에 의해 '선택된 과거 사실'이 담겨 있습니다. 역사서술 과정을 보면, 먼저 역사가가 자신의 주관적 관점을 갖고 과거의 사실들을 선별 수집합니다. 그리고 중요도를 판단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치판단 된 사실들의 인과관계를 따져 하나의 이야기를 구성합니다. 역사 이야기를 구성하려는 역사가는 대체로 자신만의 관점이나 목적을 갖기 마련입니다. 주로 자신의 목적에 부합한 과거 사실에 주목하기에 자연스럽게 역사가의 주관적 관점이 역사에 반영됩니다. 그래서 역사란 과거의 사실을 근거로 역사가의 관점을 설득력 있게 만들기 위해 치밀하게 구성된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역사를 읽는다는 것은 역사가의 관점을 통해 재구성된 이야기를 읽는 것입니다. 역사를 읽을 때는 역사가의 가치판단, 즉 먼저 '관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역사의 관점을 살핀다는 것은 역사가가 누구인지, 언제 어디서 어떤 목적을 갖고 기술했는지 살피는 것입니다. 역사는 주로 역사가의 관점과 근거에 의해 평가됩니다. 객관적이라 여겨지는 역사들도 역사가의 주관적 관점과 근거가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았기 때문입니다. 순수한 과거 사실은 무의미합니다. 그 사실이 역사가에 의해 주관적 역사가 되고, 주관적 역사가 독자에 의해 인정받을 때 될 때 비로소 객관적인 역사가 되니까요. 이런 점에서 독자들 또한 간접적으로 역사기록에 참여하는 셈입니다.

한국디자인사학회는 '디자인역사'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일종의 디자인 역사가들이죠. 역사에 관점이 있어야 한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야 합니다. "한국디자인사학회의 관점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떤 대답을 해야 할까요? 그 대답은 이미 학회의 이름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바로 '한국'입니다. 학회 설립 당시 합의했듯이 한국디자인사학회의 '한국'은 '한국에서 일어난 디자인 결과와 사건'만을 역사적 사실로 다루자는 취지가 아닙니다. 대상보다는 관점, 즉 디자인에 대한 '한국적 관점'에 가깝습니다.

그럼 '한국적 관점'이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한국'은 너무 포괄적이고 모호한 개념입니다. 저는 이 포괄적인 개념을 풀어줄 단서는 결국

‘사람’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디자인사학회의 ‘한국’을 ‘한국사람’으로 대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국디자인사학회’를 구체적으로 풀어쓴다면 ‘한국사람의 관점에서 디자인 역사를 고민하는 모임’ 정도가 되지 않을까요. 이런 점에서 우리는 ‘한국사람의 관점’이란 무엇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한국말과 한글

‘한국디자인사’라는 말은 크게 세 개의 낱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국’과 ‘디자인’ 그리고 ‘역사’입니다. 지난 1차 학술대회에서 ‘디자인’과 ‘역사’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를 들었다면, 이번 2차 학술대회에서는 ‘한국’이라는 관점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를 들었으면 합니다. ‘한국에 대한 관점’이란 현재 한국이라는 시공간에서 살아가는 ‘한국사람의 관점’이 될 것입니다.

관점으로서 ‘한국사람’에 대해 이야기를 한다면 어떤 주제가 좋을까요? 현재 한국사람들의 디자인 인식 수준은 세계 디자인의 흐름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현재 세계 문명은 거의 하나의 문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니까요. 그럼에도 굳이 다른 점을 찾는다면 ‘말과 글’, 바로 ‘한국말과 한글’이 유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사람의 관점’을 알 수 있는 가장 적절하고 유일한 주제는 ‘한국말과 한글’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한국말’과 ‘한글’은 별개의 매체입니다. 굳이 우선순위를 따지자면 ‘한국말’이 ‘한글’에 앞서죠. ‘한글’은 ‘한국말’을 표기하는 문자니까요. 말은 공공의 플랫폼입니다. 저는 ‘한국사람’이란 ‘한국말을 쓰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적이 미국이더라도 한국말을 쓰는 사람은 ‘한국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어는 영국사람들의 언어가 아니라 영어를 말할 줄 아는 사람들의 소통 매체인 동시에 생각 플랫폼입니다. 마찬가지로 한국말은 이 말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의 소통 매체인 동시에 생각 플랫폼입니다.

또한 말에는 그 말을 공공의 플랫폼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의 문명과 문화가 담겨 있습니다. 한국말은 현재 한국사람들의 과거와 미래를 연결해주는 허브입니다. 그렇기에 한국말에는 한국사람의 과거와 현재 나아가 미래의 관점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실제로 ‘나’ ‘너’ ‘우리’ ‘나라’ ‘쪽’처럼 오랜된 한국말에는 과거 한국사람들의 관점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과거의 한국사람들이 그랬듯 현재의 한국사람들은 말로서 그 관점을 이어가고 있으며, 미래의 한국사람들도 그러할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말’은 곧 한국사람의 관점이며 나아가 한국문명 그 자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국사람에게는 독특한 매체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한글’입니다. 문자 또한 공공 매체입니다. ‘한글’은 한국사람의 말소리를 표기하기 위해 만들었지만 이 문자로 ‘한국말’만 표기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알파벳이 그리스어나 라틴어의 전유물이 아닌 것처럼요. 현재 인도네시아 짜야짜아족은 자신들의 말을 기록하는 공식문자로 ‘한글’을 사용합니다.

‘한글’은 한국사람에 의해 발명된 문자매체입니다. 한글은 자음과 모음을 체계적으로 구분하고, 자소들이 가장 단순한 점선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덕분에 문자를 연구하는 대부분의 학자들에게 극찬을 받습니다. 한글이 발명된 것은 무려 500년 전이지만 한국사람이 본격적으로 문자 매체로서 한글을 읽고 쓰기 시작한 것은 불과 30년 정도입니다.

한국사람들은 약 1500년 동안 한자를 공식문자로 사용해 왔습니다. 대한민국의 독립을 알리는 ‘기미독립선언서’은 거의 대부분 한자이고, 1980년대까지 대중매체에 한자가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여전히 대부분의 학문용어와 많은 말들이 한자에 기반합니다만 이젠 모두 한글로 표기됩니다. 지금의 이 글처럼요. 한글이 일상이 된 우리 시대야말로 본격적으로 ‘한글’을 마주한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한글은 많은 소리를 체계적으로 표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또한 현존하는 문자매체 중 가장 단순한 형태라는 점에서 지금보다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문자매체입니다.

‘한국말과 한글’은 현재와 미래의 한국사람에게 남겨진 커다란 과제입니다. 한국사람들은 ‘한국말과 한글’을 한국의 유산만이 아니라 세계문명유산이자 문화적 자산으로서 어떻게 발전시키고 그 가치를 빛낼 수 있을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발제자에 대하여

이번 학술기획팀은 학술대회의 주제를 ‘역사적 관점으로서의 한국’ 구체적으로는 ‘한국말과 한글’로 잡았습니다. 2차 학술대회 첫 번째 섹션에서 이 주제를 집중적으로 다룹니다. 우리는 최봉영, 이성민, 이지원 세 분의 선생님을 모시고 한국말과 한글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듣기로 했습니다.

현재 한국사회에서 ‘한국말’에 대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 중 가장 탁월한 학자로 꼽히는 분이 최봉영 선생님입니다.

최봉영 선생님은 영문학과 한문학 등 언어학은 물론이고, 교육학과 심리학, 윤리학 등을 두루 연구한 한국말 학자입니다. 현재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전신인 '한국학대학원' 1기생이며, 학생 시절 졸업 축사를 낭독했을 정도로 한국학에 있어 주변의 신망이 두텁습니다. 교수직을 퇴직한 이후로도 한국말(교착어) 문법과 바탕에 대한 독창적인 연구를 이어가고 계십니다. 국립국어원과 한국학중앙연구원 등 한국학과 한국말을 연구하는 분들도 최봉영 선생님의 말과 글을 주목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발제자는 고민할 필요도 없이 최봉영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선생님은 이번 발제에서 '디자인'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하는지 사람의 경험적 인식과 욕망 체계 전반을 다룹니다. 선생님은 이 개념을 어려운 외국용어가 아닌 '느낌' '생각' '욕망' 등 우리에게 익숙한 한국말로 풀어 설명합니다. 한국말로 디자인을 이해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최봉영 선생님의 주요 서적 중 하나가 <한국 사회의 차별과 억압>입니다. 이 책은 한국말을 옹호하는 책이 아닙니다. 존댓말과 반말로 나뉘어 차별과 억압을 조장하는 한국말의 어두운 면을 드러낸 책이죠. 두 번째 발제자인 이성민 선생님은 이 책을 읽고 한국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말, 즉 '존비어체계'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존비어체계'는 사람 관계를 두 가지 형식으로 제한합니다. 첫 번째는 경어와 반말의 수직관계이고, 두 번째는 서로 반말하는 수평관계입니다. 반말에 의한 수평관계는 너무 사적이거나 적대적이라 욕설이 많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는 반말보다 존댓말을 권장합니다.

오랜 시간 철학적 주제로 '우정'과 '대화'를 연구해오신 이성민 선생님은 그 원인이 '존비어체계'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존댓말과 반말이 섞이면 우정은커녕 대화조차 어렵습니다. 반말로 대화하면 막말이 되기 십상입니다. 존댓말로 대화하면 서로 말을 삼가기에 자신의 생각을 마음껏 말하기 어렵습니다. 이렇듯 한국말의 '존비어체계' 때문에 한국사회에서는 수평적 우정 관계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이성민 선생님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아주 흥미로운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선생님은 존댓말도 반말도 아닌 그 중간의 언어소통 방식인 '평어(平語)'를 디자인했습니다. '평어'는 말은 반말로 하되, 호칭은 영어처럼 서로 이름을 부르는 방식입니다. 호칭에 신경 쓰면 반말이 막말이 되지 않습니다. 선생님은 평어로 이어지는 언어관계를 통해 새로운 사람관계가 형성되는 과정을 몸소 실천하고 경험해 오셨습니다. 우리는 이 경험담을 통해 말을 새롭게 디자인 함으로써 사람 관계가 어떻게 바뀌어 가는지 엿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디자인사회에서 ‘한글’은 큰 화두입니다. 그래서 여러 디자인학회와 분야에서 ‘한글’을 주제로 다양한 이야기가 오가고 있습니다. 대부분 한글의 형식과 표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번에 한글을 주제로 발제하는 이지원 선생님은 지금까지의 접근과 다소 결이 다릅니다. 이지원 선생님은 ‘말’이 ‘글’로 변화되는 과정을 세종의 입장에서 고민해 왔습니다. <훈민정음>을 근거로 말과 소리가 이미지로 표현될 때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나름의 생각을 차려왔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지원 선생님은 언어학자가 아니라 소리를 이미지로 표현하는 그래픽 디자이너로서 ‘한글’을 분석합니다. 직관적이고 느낌적인 접근을 상상하면 곤란합니다. 기존 학설에 새로운 학설을 더하고 나아가 자신의 관점과 생각을 보태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제시합니다.

정리하면 우리는 총 3가지 ‘한국말과 한글’ 이야기를 듣게 될 것입니다. 최봉영 선생님을 통해 한국사람이 경험을 어떻게 말로 디자인했는지, 또 이성민 선생님을 통해 한국말을 새롭게 디자인 함으로서 어떤 관계가 형성되는지, 마지막으로 이지원 선생님을 통해 사람의 소리가 어떻게 이미지로 디자인되는지 흥미로운 이야기를 듣게 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